

‘무엇이 효과적인가의 함정’과 영유아 교육의 본질

황옥경 육아정책연구소 소장

영유아 사교육 열풍은 왜 발생하는가?

최근 우리 사회에서 영유아 사교육은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고 있다. 과거에는 초등학교 입학 이후의 교육 경쟁이 주요 관심사였다면, 이제는 경쟁의 시작 시점이 영유아기로 이동하고 있다. 이른바 ‘4세 고시’, ‘7세 고시’로 불리는 유아 영어학원의 레벨 테스트와 영유아 대상 학습 프로그램은 더 이상 일부 계층의 선택이 아니라 사회적 현상으로 자리 잡고 있다. 영유아 사교육 참여율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사교육의 시작 연령은 점점 낮아지고 있다. 표면적으로 영유아 사교육은 부모의 교육열이나 불안 심리의 결과로 이해되곤 한다. 그러나 보다 깊이 들여다보면 영유아 사교육 열풍은 단순히 개별 부모의 선택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가 교육의 목적과 가치를 이해하는 방식과 깊이 연관되어 있다. 우리 사회는 지금 근본적인 질문과 마주하고 있다. 왜 아이들이 놀이보다 학습에 더 많은 시간을 보내게 되었는가. 왜 부모들은 영유아기부터 아이를 경쟁에 참여시키는가. 그리고 영유아기는 그 자체로 존중받아야 할 삶의 시기가 아니라 미래를 준비하기 위한 단계로 인식되게 되었는가.

오늘날 교육은 점차 ‘무엇이 효과적인가(what works)?’라는 질문으로 환원되고 있다. 이 질문은 매우 합리적으로 보이지만, 교육을 특정 결과를 생산하는 기술적 과정으로 환원하는 위험이 있다. 달베르크(Dahlberg)와 모스(Moss)는 이러한 현상을 ‘도구적 합리성(instrumental rationality)’의 지배라고 설명한다. 그들에 따르면 현대 사회는 교육을 특정 결과를 산출하는 기술적 실천으로 바라보며, 교육기관을 미리 정해진 성과를 생산하는 장소로 이해한다. 교육은 인간 형성과 민주적 삶을 위한 과정이 아니라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고 경제적 성공을 보장하는 기술로 전환된다.

교육을 바라보는 도구적 합리성은 영유아 교육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부모들은 아이가 조금이라도 뒤처질지 모른다는 불안 속에서 더 빠르게, 더 많이 배워야 하며, 더 좋은 기회를 가지게 하려 한다.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영유아기는 자기 탐색과 놀이의 시기가 아니라 미래 경쟁력을 준비하는 시기로 재구성되고 있다. 영유아는 현재의 존재가 아니라 미래의 인적 자원으로 간주되고, 교육은 미래 생산성을 높이는 투자수단으로 해석된다. 결국 영유아기는 인간 형성의 시기가 아니라, 미래 경쟁력을 축적하는 시기로 축소된다. 영유아는 미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프로그램화’되어야 하는 존재로 이해된다. 영유아 사교육은 사실상 능력주의 경쟁의 출발선을 끊임없이 앞당기는 과정이다.

우리나라의 영유아 사교육 열풍은 바로 이러한 도구적 교육관이 가장 극단적으로 드러난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아이들이 성장하는 존재가 아니라 성과를 산출해야 하는 프로젝트가 된다. 교육기관은 배움의 공간이 아니라 결과를 생산하는 공간이 된다. 조기 교육기관은 부모들에게 미래의 성공 가능성을 상품화하는 기관이 되

고 있다. 교사는 관계를 맺는 존재가 아니라 성과를 관리하는 전문가가 된다. 부모 역시 아이를 있는 그대로 바라보기보다 미래의 성공 가능성이라는 관점에서 이해하게 된다.

교육이 윤리와 정치의 영역에서 기술과 효율의 영역으로 이동할 때, 교육은 미리 설정된 목표와 기준을 달성하는 데 집중한다. 이 때 교육은 무엇을 표준으로 삼을 것인가를 결정하고, 표준에 도달하였는지를 평가하며 이에 도달하는 여러가지 교육방법을 만들어낸다. 이러한 교육은 영유아가 자유롭게 생각하도록 자극하지 않으면서 영유아가 특정 방식으로 행동하도록 규율한다. 이러한 교육은 푸코가 말한 ‘규율 권력’이 작동하여 정상성을 생산하는 과정이라 할 수 있다. 레지오에밀리아는 영유아를 표준화의 대상이 아니라, 스스로 의미를 구성하는 권리의 주체로 바라본다는 점에서 이러한 도구적 교육관에 대한 중요한 대안을 제시하였다.

부모의 불안: 미래를 통제하려는 욕망

부모들은 흔히 “좋은 부모가 되기 위해” 사교육을 선택한다고 말한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우리 사회의 구조적 경쟁 체제가 존재한다. 영유아기는 본래 관계와 놀이, 탐색을 통해 배우는 시기이지만, 현재 많은 부모들은 영유아기의 경험을 미래 성취를 위한 투자로 해석한다. 영유아들은 점점 더 이른 시기부터 평가받고 분류된다. 언어 능력, 인지 능력, 사회성, 발달 수준은 수많은 검사와 평가의 대상이 된다. 부모는 아이를 끊임없이 관찰하고 기록하며 비교한다. 외국어를 빨리 배우면 미래가 보장될 것 같고, 인지 능력을 빨리 개발하면 성공 가능성이 높아질 것처럼 생각한다. 부모는 조기교육이 자녀의 미래 삶의 질을 통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그러나 이는 미래를 예측 가능한 것으로 전제할 때만 가능한 믿음이다. 오늘날 아이들이 살아갈 세상은 지금과 전혀 다를 수 있다. 그럼에도 우리는 과거의 성공 공식을 영유아기부터 반복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이는 현대 사회가 만들어 낸 ‘예측 가능성에 대한 집착’ 때문이다.

사람들은 불확실한 미래를 통제하기 위해 교육을 활용하고자 한다. 그러나 미래는 본질적으로 예측할 수 없는 것이다. 특정 학습 경험이 미래의 성공을 보장한다는 믿음은 과학적 사실이라기보다 사회적 신념에 가깝다. 그럼에도 부모들은 불확실성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더 많은 사교육을 선택하게 된다. 결국 영유아 사교육은 아이의 필요보다 부모의 불안을 관리하는 수단으로 기능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영유아 교육의 본질과 방향

영유아 사교육 논쟁의 핵심은 영유아기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의 문제에서 출발한다. 영유아기는 인간 발달의 관점에서 가장 역동적인 시기이다. 이 시기에는 매 초당 백만 개 이상의 새로운 신경 연결이 형성되며, 정서와 인지, 언어와 사회성이 통합적으로 발달한다. 이러한 발달은 단순히 더 많은 정보를 주입한다고 해서 촉진되지는 않는다. 오히려 안정적인 관계, 충분한 놀이, 다양한 경험, 그리고 스스로 탐색할 수 있는 환경이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현재 우리 사회는 영유아기를 미래를 준비하는 시기로 이해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영유아기가 생애 주기 중 가장 빠르게 발달하는 시기라고 하더라도 영유아기는 미래 이전에 현재이다. 영유아는 미래의 시민이 아니라 현재의 시민이다. 현재의 삶을 살아가는 존재이며, 지금 행복할 권리가 있는 존재이다. 이 시기의 의미는 자기 자신을 발견하고, 타인과 관계를 맺고, 세상을 탐색하며, 실패와 성공을 경험하는 과정 자체에 있다. 놀이가 중

요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놀이 자체가 영유아기의 삶이며 존재 방식이다. 우리 모두는 놀이를 통해 세상에 대한 첫 탐험을 시작한다. 주변의 사람, 장소, 환경을 관찰하면서 질문을 던지고 연결고리를 만들어 낸다. 어린 시절의 놀이는 단순한 추억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세상을 이해하고 타인과 지속적인 관계를 맺는 데 도움을 준다.

최근 연구들은 영유아기의 과도한 학습 중심 사교육이 기대만큼의 장기적 효과를 보이지 않으며, 오히려 사회정서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유아가 스스로 선택하고 탐색하는 경험이 줄어들고, 부모와의 상호작용 시간이 감소하며, 놀이 시간이 학습으로 대체될 때에는 발달적 위험이 발생할 수 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영유아 교육을 지향해야 하는가. 먼저, 영유아를 미래의 성인 이전에 현재의 시민으로 바라보아야 한다. 영유아는 미래를 위한 투자 대상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권리를 가진 인간이다. 따라서 교육은 미래의 성취를 위한 수단이 아니라 영유아기에 마땅한 경험을 통해서 삶을 풍요롭게 하는 경험을 해 주어야 한다. 영유아 교육은 아이를 특정한 기준에 맞추는 과정이 아니라 아이의 '가능성을 발견하고 확장'하는 과정이어야 한다.

다음으로, '효과' 중심의 교육관에서 벗어나야 한다. 교육을 오직 성과와 효율성의 관점에서 바라보면 영유아기의 복잡성과 다양성은 사라진다. 영유아 교육은 생산성과 수익률로 평가될 수 없는 영역이다. 아이들은 서로 다른 속도로 성장하며, 발달은 예측 가능한 직선이 아니라 다양한 가능성이 열려 있는 과정이다. 따라서 교육정책의 핵심 질문은 '무엇이 효과적인가'가 만이 아니라 '어떤 인간을 길러내고 싶은가', '어떤 사회를 만들고 싶은가'라는 윤리적 질문을 함께 던져야 한다. 이는 교육을 경제적 투자나 경쟁력 강화의 수단으로 보는 시각을 넘어서는 관점이다.

영유아 교육을 민주적이고 관계적인 공간으로 재구성하는 노력도 필요하다. 달베르크와 모스는 영유아 교육기관을 결과 생산의 공간이 아니라 '윤리적·정치적 실천의 공간'으로 이해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교육은 아이에게 정답을 주입하는 과정이 아니라 아이와 함께 질문하고 탐색하는 과정이다. 교사는 통제자가 아니라 경청하는 존재이며, 아이와 함께 탐구하는 동료이며, 교육은 통제가 아니라 관계와 연결의 과정이다. 교육기관은 경쟁의 장소가 아니라 공동체적 삶을 경험하는 공간이어야 한다.

덧붙여, 영유아기의 교육은 인지적 성취를 앞당기는 것이 아니라 건강한 사회정서적 기술의 발달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Royal Foundation Centre for Early Childhood는 최근 발표한 『Foundations for Life(2026)』에서 사회정서적 기술이 인간 삶의 기초가 된다고 강조한다. 감정조절, 자기이해, 관계 형성, 사고집중, 세계탐색, 의사소통과 같은 사회정서적 기술이 인간 삶의 기저에서 작동하는 심리적 힘이며, 이것이 삶의 질을 지배한다고 본다. 이를 위해 생애 초기부터 교육 설계, 지원 등의 정책적 노력이 수반되어야 할 것을 지적한다. 영유아기의 핵심 과제는 지식을 더 빨리 배우는 것이 아니라 자기와 세상을 더 깊이 경험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국가는 영유아기 교육에 대한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 사교육 의존은 단순히 부모의 선택 때문만이 아니라 공교육에 대한 신뢰 부족과 사회적 경쟁 압력에서 비롯된다. 따라서 정부는 영유아기 교육과 돌봄의 질을 높이고, 부모들이 불안 때문에 사교육을 선택하지 않도록 정부책임형 유보통합을 통해서 모든 영유아기 배움의 격차가 발생하지 않고, 자신과 세상에 대한 탐색을 충분히 경험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야 한다.

영유아 사교육 열풍은 단순히 교육 시장의 문제가 아니다. 그것은 우리 사회가 교육을 무엇으로 이해하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것이다. 영유아 교육은 더 빨리, 더 많이 배우게 하는 것이 아니다. 아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더 많은 학습이 아니라 더 풍부한 경험이며, 더 빠른 성취가 아니라 사람과 세상과의 더 깊은 관계이다. 우리는

조기 성취의 기록이 아니라, 영유아가 탐색하고 관계 맺고 실패하며 다시 도전할 수 있는 풍부한 경험을 제공해 줄 수 있어야 한다.

영유아 교육의 본질은 경쟁력과 성과가 아니라 성장에 있다. 이러한 관점의 전환이야말로 영유아 사교육 열풍을 넘어서는 가장 근본적인 출발점이 될 것이다.